



# 변혁의 물결이 넘치는

## (구) 소련 (1)



배 순 덕

8월 3일, 12시 40분에 김포공항을 출발하기로 한 모스크바행 비행기가 한시간이나 늦게 이륙했다.

먼 나라로의 여행은 결코 설레임만이 전부는 아니다.

출발 준비를 하던 며칠 전부터 몸이 많이 아팠었다. 심한 두통과 몸살을 앓았고, 그것이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이번엔 걷잡을 수 없는 설사와 복통이 일어났다. 김포공항 신 청사 이층에서 일행을 만나 출국수속을 하는 동안에도, 출발시간보다 늦어진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상스런 불안감과 함께 복통은 계속되었다. 그렇다고 여행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우리와는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나라인 소련. 1917년 볼셰비키혁명으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된 사회주의의 종주국인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분단의 주역이었고 6·25와 동서냉전의 시대를 지나면서는 더욱 더 멀어질 수 밖에 없었던 나라, 철의 장막에 가리운 채 수십년동안 국교가 단절되었던 미지의 땅 소련을 가게 된다는데 이까짓 아픔이 대수라 싶어 근심 어린 어머니의 눈빛을 뒤로 한 채 약을 한 보따리 챙겨 들고 집을 나섰던 것이다.

서울 상공을 벗어나 구름 속을 달리는 비행기 안에서 서서히 일기 시작하는 흥분과 설레임은 9시간 55분이라는 긴 탑승시간과 계속되는 복통을 그런대로 견딜만하게 했다. 손목의 시계가 자정이 다된 11시 50분을 가리킬 즈음에 모스크바에 도착했

다. 현지 시각으로는 길고 긴 여름날의 오후 5시 49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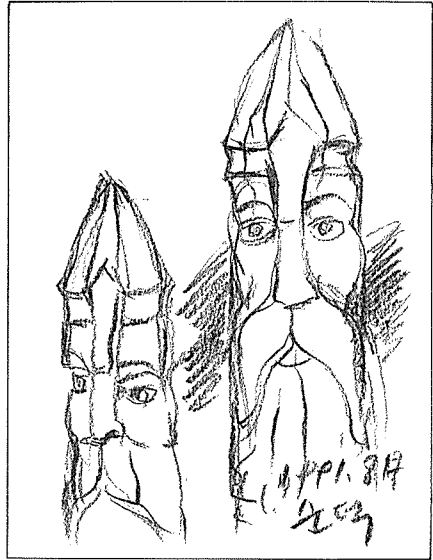
간단한 입국절차와 함께 미리 대기해 있던 버스를 타고 공항을 빠져 나갔다. 모스크바 시내로 향하는 한산한 길 옆에는 드문드문 대형광고탑이 눈에 들어왔고 선경이나 쌍용같은 낯익은 우리 기업의 광고탑도 더러 섞여서 우릴 반겨 주었다.

구소련의 공식명칭은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공화국(USSR)’. 소비에트란 말은 러시아어로 회의(會議)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USSR이란 곧 회의체제의 사회주의공화국 동맹이라는 말이 된다.

연방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15개의 공화국과 다수의 민족들이 한데 모여있고 그 규모에 따라 자치공화국이나 자치구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땅에는 소련사람이나 소련말(言語)은 없고 제각기의 크고 작은 민족의 이름과 언어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인이라던가 그루지야인, 러시아인 등으로 그 중에서도 소련의 주체를 이루는 것은 단연, 76%의 면적과 50%이상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소비에트이고, 소련의 공통어도 역시 러시아어이다.

러시아의 수도인 동시에 연방의 수도이기도 한 모스크바의 첫인상은, 수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답게 튼튼하게 생긴 고풍스런 집들과 이국적인 건축양식이 도시 전체를 묵직하게 했다. 건물들은 때마침 기울어지는 비스듬한 저녁햇살 속에서 황금



▲ 호텔과 민가와와 경계부분에서 있던 우리나라의 장승을 닮은 목조 인형

빛으로 떠올라, 황홀한 아름다움과 어딘가 알 수 없는 비애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미묘함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숙소 주변의 산책에서부터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버스종점이 있는, 시 외곽의 한산한 곳에 자리잡은 숙소인 RUSHOTEL은 들뜬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미류나무와 같은 모습의 고층빌딩이다.

시골운동장처럼 넓고 잘 정돈된 그 호텔 마당의 왼쪽 끝에 있는 낮은 언덕에는 우리나라의 장승처럼 나무를 깎아 세운 문지가 있었고 그 위에 문이 떨어져 나간 채 지지분하게 놓여있는 플라스틱 간이 화장실이 있었다.



◀ 레닌의 묘 맞은 편에 있는 모스크바 최대의 백화점 “굼”. 굼은 국립 백화점이다.

근처에 드문드문 이어져 있는 민가 어디에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와 따라가 보았더니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자리한 집이었다. 허술한 나무울타리 너머로 닭장과 염소 우리가 보였고, 안마당 그늘진 곳의 나무탁자에 앉아 젊은남자 둘이서 기타처럼 생긴 작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보더니 반색을 했다.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차를 대접하겠다고 한참 동안 부산을 떨더니 팔거나 바꿀 물건이 있는가를 은근히 물어왔다. 카메라나 라디오, 담배 등 무엇이나 괜찮다고 하면서 앞서 온 관광객들과도 많이 바꿨다며 자랑을 했다.

말로만 들어왔던 거칠고 딱딱한 검은 빵과 소금에 절인 얇은 살코기와 연어알 등으로 식사를 하고 첫번째 방문지인 콜호즈 집단농장으로 향했다. 콜호즈 집단농장은 토마토나 오이, 버섯 등의 야채가 생산되는 곳이다.

온실처럼 지어진 대형의 유리건물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곳을 돌아서 아스라히

뻗어 나가고 있는 길다란 수도파이프의 주변에는, 잘 정돈된 잔디 속에서 노란 얼굴로 잔잔하게 웃고 있는 들꽃들이 인상적이었다.

우리의 방문을 농장관계자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다. 미리 얘기가 되어 있었던듯 한데도 입구에서부터 담당자가 없으며 농장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는 듯 하더니, 그래도 잠깐만 둘러 보겠다고 떼를 쓰자 마지못해 버섯공장등 몇군데만 보여 주겠다고 했다.

나는 사회주의의 집단농장이라는 것이, 외형상으로는 수십만평의 너른 벌판에서 수만명의 사람들이 공동의 일을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마치는, 질서와 복제거림이 적당히 가미된 곳 쯤으로 상상해 왔다. 그러나 콜호즈 집단농장은 그러한 내 상상력이 얼마나 빈약했던가를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

그날이 휴일인 때문이었을까? 들판처럼 널다란 농장의 온실과 온실 사이로 나 있는 넓은 길을 한참동안 거슬러 올라갔는

데도 사람의 모습은 그림자도 없었다. 버섯공장 안에서 마주친 두어명의 인부가 고작이었다.

실용성만을 생각하여 지은듯 창고처럼 생긴 회색빛 높은 지붕의 커다란 건물입구에는 탐스런 버섯바구니를 들고 있는 앳된 소녀의 그림이 있었다. 그 그림너머로부터 퀴퀴한 습기와 흙이나 곰팡이 비슷한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건물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의 굉음때문에 마치 소음 속에 뚝뚝 떠있는 것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어둡고 좁은 복도의 양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문이 달려있고 그곳의 인부인듯한 중년의 남자가 문을 열어 보이며 버섯이 자라고 있는 광경과 배양의 과정 등을 설명해 주었다. 보기보다는 친절하고 씩씩했다.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저녁을 먹고 일찍 쉬려는데 함께 온 일행들의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스럽다. 호텔의 지하에 있는 디스코클럽에 가자는 것이다.

5달러의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서니 발디딜 틈없이 사람들로 북적댔다. 대부분이 호텔의 투숙객과 소련의 젊은 남녀들이다. 불빛이 현란한 무대 주변으로 둥근 탁자가 놓여 있는 좌석은 모두가 동이 난 상태였고, 술잔을 들고 서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입구까지 꽉 차있었다.

나도 일행과 함께 그들 틈에 끼어서서 주변을 세세하게 살펴보았다. 번쩍이는 불빛아래서 흐드러지듯 뒤엎히는 울동,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팬티가 보일

소련의 주체를 이루는  
것은 76%의  
면적과 50%  
이상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소비에트이다.

정도의 짧은 치마를 입고서도 호물호물 꺼리낌 없이 몸을 흔들어대는 소련의 젊은 여자들이다. 그녀들은 입장료만 내고 들어와서는 혼자인듯한 남자에게는 거침없는 유혹의 손길을 뻗었다.

아까부터 저쪽에 혼자 떨어져 있던 일행 중의 한 사람에게 치근거리던 젊은 여자는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 앉았다. 그가 일행이 있으니 자리를 양보하라고 해도 막무가내다. 탁자 가운데로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그에게 더욱 더 몸을 밀착시켜 갔다.

러시아여성들이 정열적이고 개방적이란 말을 들었지만 이젠 좀 지나치지 않나 싶었는데, 100(one hundred) 달러만 주면 잠자리까지도 오케이 하겠다는 말에는 기가 질렸다. 피곤한데다 보기도 민망하여 따라놓은 맥주만 한컵 들이키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왔다. **ㄹ**

<필자=화가·호는 창랑(滄浪)>